

금융시장 혼란 지속... '비상구'는 없나

정부와 금융당국은 물론 전문가들조차 실체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하는 '9월 위기설'이 이틀째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위기설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각종 지표를 볼 때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로 번질만한 수준은 아닌 만큼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틀째 환율 급등·주가 급락 '위기설' 증폭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투자자 불안감 커져

정부·전문가들 "위기 과장, 곧 안정 찾을 것"

◇금융불안 지속... 정부 진화 총력=2일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급등하고 주가가 하락한 것은 9월 위기설이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부 외신에선 한국의 외환보유액 부족과 외채 증가, 만기 도

래 국제의 9월 집중 등을 거론하며 위기설을 부추기기도 했다. 외환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의 증시 이탈과 미국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달러 수요는 급격히 늘어난 반면 공급은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외국인이 보유 채권을 팔고 떠날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과 무역수지가 줄어 100억 달러 넘는 적자를 기록한 점도

달러 부족에 대한 우려를 키우며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증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미국발 신용경색, 환율 불안 등 대내외 약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일부 대기업의 유동성 우려까지 제기되며 이틀째 하락했다. 환율·주가와 함께 '트리플 약세'의 한 축인 채권시장에서는 통화당국이 원화 약세를 단행할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연일 국제채리가 오르고 있다. 정부는 9월말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적극 진화에 나서고 있다.

9월 만기 도래하는 외국인 보유 채권은 7조 원으로, 기대 수익률 상승에 따라 채투자 가능성은 크며 은행권의 3개월 외화유동성 비율은 7월말 현재 102.6%로 금융당국의 권고비율 85%를 웃돌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김동수 제1차관은 "최근 환율상승은 수급에 의한 요인도 있지만 심리적 솔림현상으로 인한 과도한 측면

외환보유액 두달새 150억달러 줄었다

韓銀, 8월말 현재 2,432억달러

외환보유액이 7월에 이어 8월에도 큰 폭으로 감소하며 두달간 150억 달러가 줄었다. 다만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강도가 약화된 영향 등으로 감소폭은 전월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한국은행은 8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2천432억 달러로 전월말에 비해 43억2천만 달러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사상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던 7월(-105억8천만 달러)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3월 18억8천만 달러 증가에서 4월 37억6천만 달러 감소로 돌아선 뒤 5월(-22억8천만 달러)과 6월(-1억 달러) 모두 감소세를 유지했다. 한은은 "8월중 외환보유액 감소는 운용 수익 등 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등 기타 보유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환산액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환율급등 과도한 솔림현상 정부, 단호히 대처 하겠다"

김동수 재정부 차관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일 "정부는 외환시장의 과도한 급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심리적 솔림현상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면서 "정부의 대응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말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과천 국무위원식당에서 연속으로 열린 긴급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와 물가안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환율 상승은 수급에 의한 요인도 있지만 심리적 솔림현상으로 인해 과도하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차관은 "어제 금융시장은 환율이 27원 이상 상승하고 주가는 6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면서 "이는 '9월 위기설', 8월 무역수지 적자 확대, 미국 허리케인 상륙에 의한 국제유가 상승 우려, 외국인 보유 채권 및 은행 증권가 차입금 만기의 9월 집중 등에 대해 시장에서 우려한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韓銀총재 "환율, 시장 수급에 맡겨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2일 환율은 시장수급에 맡겨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포럼에 참석해 "환율, 주가 변동이 상당할 수 있지만 (이들)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당한 정도의 가격변동에 대해서는 그럴 수(받아줄 수) 있다"며 "(그렇다고) 우리 경제가 파탄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나친 시장개입이 오히려 환율 상승 압력을 만들어내고 이는 다시 투기를 조장하는 만큼 시장안정을 위해서도 외환당국은 가능하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9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색깔있는 감자'가 더 맛있어요. 2일 경기도 수원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에서 색깔있는 감자 특별전시회가 열려 어린이들이 기능성 컬러 감자를 시식하고 있다. 농진청은 이번 전시회에 자주색의 '지렁이'와 국내 최초의 빨간색 감자 '홍영' 등 기능성이 대폭 강화된 컬러감자 등 22개 품종을 전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외자 46만명 구제

이달 2천억 지원... 내년 5천억 추가 조성 뒤 대상 확대

금융소외자에 대한 정부의 신용회복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일 금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캠코는 이달 안에 1단계로 약 2천억 원의 신용회복기금을 조성해 금융소외자의 빚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우선 작년 말 기준으로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서 빌린 1천만 원 이하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약 46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출 금액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된다. 이중 금융회사 연체자 5만~6만 명, 대부업체 연체자 20만 명 등 25만~26만 명은 원칙적으로 연체 이자만 감면받고 원금은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최장 8년 이내에서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나머지 20만~21만 명은 연 30% 이

상의 고금리 대출(1천만 원 이하)을 이용하고 있는 신용등급 7~10등급의 정상 상환자로,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캠코는 이를 위해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 채권을 사들여 10월부터 금융소외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지만 대부업체들이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건이다. 캠코는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의 연체 채권을 10% 이내의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대부업체들은 그 이상의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와 캠코는 내년 중에 2단계로 신용회복기금을 5천억원 가량 더 조성해 3천만 원 이하의 대출금을 3개월 이상 못 갚고 있거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자 등 약 26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연합뉴스

유가환급금 연내 일괄 지급

올해와 내년 두 번에 걸쳐 지급될 예정이었던 유가환급금이 연내 일괄 지급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일 "여당에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두 번에 걸쳐 지급하기로 한 유가환급금을 연내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 내일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면 근로자는 10월에 신청해 11월에 최대 24만원의 지급받고, 자영업자는 11월에 신청해 11월 또는 12월에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가환급금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세 환급 방식을 통해 1인당 연간 최대 24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근무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요건이 결정된다. 근로자의 경우 보수총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각종 공제를 차감하기 전 금액인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는 24만원, 3천만~3천600만원의 세 개 구간으로 나눠 18만원(3천만~3천200만원), 12만원(3천200만~3천400만원), 6만원(3천400만~3천600만원)을 각각 받는다. 자영업자 지급대상은 종합소득금액 2천400만원 이하로 이중 2천만원 이하(자영업자의 85%, 390만명)는 24만원, 2천만~2천400만원(10만명)은 각각 18만원(2천만~2천130만원), 12만원(2천130만~2천260만원), 6만원(2천260만~2천400만원) 등으로 나눠 지급한다. /연합뉴스

올 국세 6조~7조 더 걷힐듯

한상률 국세청장 상반기 세수 91조... 작년보다 12조 늘어

올해 국세가 세입예산보다 6조~7조 원 가량 더 걷힐 전망이다. 또 상반기에는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통한 과세 포착률 향상으로 작년 동기대비 12조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초과 세수전망을 묻는 질문에 "하반기에는 경기변수가 많아 추경이 어렵지만 원래 세입예산보다 6조~7조원 가량 더 걷힐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157조3천억원으로, 이 추경에 따르면 연간 세수는 163조~164조원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또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서 6월말 기준 국세 세수실적은 91조2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4.9%(11조8천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세입예산 대비 상반기 세수 진도는 58%선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작년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늘고 수입 증가로 부가가치세가 잘 걷혔으며,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호조를 보였으나 부당산과세 감소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다소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여고생이 54% 수익률

모의투자대회 민사고 방소정양 화제

하락장서 우량주 중심 '단타' 거래로

여고생이 하락장에서 대형주 위주 거래로 54%의 수익을 거두는 눈길을 끌었다. 현대증권은 지난 7월부터 총 5주에 걸쳐 개최한 전국고등학교모의투자대회가 최근 막을 내렸는데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주인공은 54.49%의 누적수익률을 기록한 방소정(민족사관고 2년)양이라고 2일 밝혔다. 방양은 주어진 사이버버니 5천만원의 7천725만원으로 불렀다. 대회기간 코스피지수가 4.12%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자산 대비 58.61%의 수익을 달성한 셈이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방양은 LG전자, 미래에셋증권, LG화학, GS건설, 동아제약 등 8개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하루에도 몇번씩 사고파는 단타매매로 수익을 거뒀다"고 말했다. 이밖에 덕수고 김현진 군이 수익률 41.92%로 2위, 신성고 김현기 군이 29.60%로 3위를 차지했고, 이들을 포함한 대회 우수자 21명에게 총 1천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이번 대회에는 총 280개 학교, 1천447명의 고교생이 참가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커리어서치	[광주/국성]금호타이어 사무보조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04	062-515-0026
경기합동경동택배☎	정규직 전선업무 담당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05	061-399-2400
AIG손해보험	[AIG 순천 CS센터]제6기 인바운드 상담원(CSR)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05	061-906-7632
스타일엔진	소평물 물류 담당자 및 의무 촬영 해주실분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06	062-710-5220
대한생명보험	[광주/전남]생명보험 컨설턴트 신입 및 경력직	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9/08	062-383-0494
☎그린밀	KTF 충청로 고객지원센터 정규직 상담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08	042-223-4900
광주아이리버	광주아이리버존 A/S 및 고객센터 접수 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09	062-236-1088
LG CNS	[광주]2008 LG CNS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09	02-6363-5000
☎광주광역정보센터	[웹프로그래밍/웹디자인/DB구축] 정규직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09	062-224-8564
듀스킨	[인터넷쇼핑몰] 사무/운영관리 담당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09	062-512-9539
☎한양에스엔씨	해외영업직/경리, 회계직 정규 사원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9/09	062-382-1311
☎발해정보	컴퓨터 도매 업체로서 납품 및 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9/10	062-525-8880
☎유로넷	[연봉2400]SK텔레콤 광주 114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2400~2600	09/11	02-780-9595

☎(광주)062-224-6210 제공